



나흘만에 또 태풍... '하이선' 물폭탄 우려

7일 새벽 4시쯤 제주 동쪽 310km 지점 거쳐 북상 제주전역 직접 영향권... 최대 300mm 폭우 뿌릴 듯

제주가 나흘 만에 또다시 태풍의 영향권에 놓였다. 제주는 태풍의 위험 반원과 중심 이동경로에서 벗어나 있지만 태풍의 강풍 반경이 워낙 넓은 탓에 폭우와 강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일본 가고시마 남남서쪽 약 240km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30km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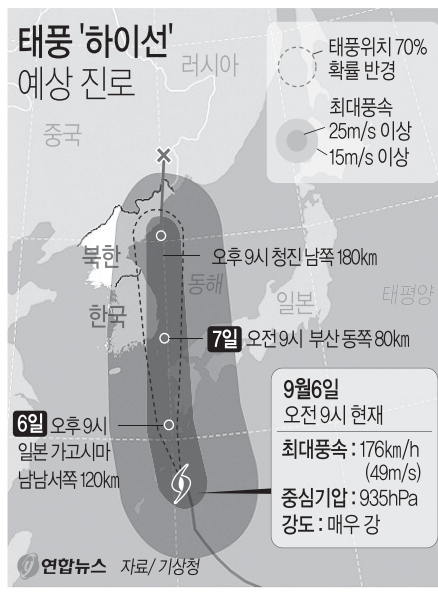
태풍 하이선은 현재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hPa)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9m, 강풍반경 420km에 이르는 강도 '매우강'의 중형 태풍이다. 태풍 하이선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다소 약화돼 이날 오후 9

시쯤 강도가 '매우강'에서 '강'으로 한단계 하향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는 이날 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 이후 태풍 하이선은 7일 오전 4시 강도 '강'인 상태를 유지한 채 서귀포시 동쪽 310km 해상까지 진출하며 제주와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7일 오후까지 제주에 100~200mm, 산지 등에는 최대 3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대순간풍속 초속 25~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6일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세별오름에서 최대순간풍속 초속 21m의 강풍이 관측됐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각급 기관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6일 오후를 기해 비상근무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해수욕장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는 한편 한천, 남수각 일대에 대한 차량 출입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주해양경찰청도 전날부터 비상근무에 나서 선박 1950여척을 주요 항포구로 피항시켰다. 태풍의 영향으로 7일 하루 제주를 오가는 7개 항로 여객선은 운항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하늘길도 차질을 빚기 시작해 6일 오후 5시 이후로 예정됐던 제주기점 항공기 5편이 결항했으며 7일 오전에는 운항 취소에 나서는 항공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간대는 6일 밤에서 7일 오전까지로 예상된다"며 "태풍의 이동경로에 가까워지면서 폭우가 예상되니 저지대 침수, 하수·하천 범람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차 시비에 인분 뿌려

주차 시비로 갈등을 겪다 상대 차량에 '인분'을 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A(60대)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제주시 한 공동주택 앞에 세워진 B씨의 차량 유리에 수차례 인분을 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와 공동주택 내에서 주차 장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복면을 써 신분을 숨기고 수일에 걸쳐 인분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태풍 내습 예고... '하이선'의 위력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6일 서귀포시 표선면 해안도로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80대 경운기에 깔려 숨져

80대 노인이 경운기 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53분쯤 서귀포시 하에 하동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A(81)씨가 경운기 앞바퀴에 깔린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강다혜기자

코로나에 숙박업소 상하수도 요금 부담 ↑

제주시 6~8월분 징수유예 신청 189건중 94건이 숙박업

제주시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6~8월 하수도요금에 대해 3개월간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결과 절반이 숙박업소로 나타났다.

시는 8월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징수유예를 신청한 업체가 189건에 유예금액은 4억727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동 지역 118건·3억3870만원, 읍면지역이 71건·6857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용 157건, 가정용 26건, 농수축산용 3건, 대중탕용 3건이다.

업종을 세분화하면 숙박업소(호텔·펜션·콘도·게스트하우스 등)가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점

(식당·카페 등) 30건, 체육시설 12건, 영화관 3건, 병원 6건, 공장 9건, 어린이집 3건, 세탁소 3, 사우나 3건, 가정 26건이다.

징수유예를 신청한 이들에게는 남기를 3개월씩 연장해 유예기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6월 상하수도 요금 고지분은 9월까지 납부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미납시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징수유예 기한 마감일에 대한 수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입도 외국인 유학생 26명 '음성' 도,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제주도에 입도한 외국인 유학생 26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 항공편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입도한 외국인 유학생 26명(19개 국적)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 내 설치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도 방역당국은 4일 오후 2시30분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사 결

과 유학생 전원 '음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인 유학생 26명은 검체 검사를 받은 후 수송 차량을 이용해 대학 측에서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의 격리에 들어갔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입도하는 즉시 제주국제공항에 마련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의 자가 또는 시설격리 기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lty9456@ihalla.com

코로나19 제주 48번 확진자 발생

제주 30번 확진자와 접촉

제주지역 4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 방문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인 제주 3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주 30번 확진자(8월 24일 확진판정)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다.

A씨는 코로나19 증상 발현으로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쯤 자가용을 이용해 제주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 후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가격리 첫날인 지난달 25일 이뤄진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A씨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족과 공간을 분리해 생활해 왔고, 4일 제주보건소에서 검사 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까지 격리를 유지했다고 밝힘에 따라 A씨와 관련해 접촉자 및 이동 동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A씨를 제주대학교병원 입암병상으로 이송하는 한편, A씨 자택 내·외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

이태훈기자

렌터카 사고로 휴가 온 현직경찰관 숨져

제주로 관광 온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 5·16 도로에서 A(49)씨가 몰던 렌터카 차량이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주행하다 도로

옆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B(50)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C(50)씨도 경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주시 휴가를 보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고소작업차 전복 운전자 숨져

고소작업차량(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비)을 갖춘 차량이 운행 도중 전복돼 운전자가 숨졌다.

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쯤 제

주시 노형동 제주도축산진흥원 인근 왕복 2차로에서 3.5t 고소작업차량이 가로수 등을 들이 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3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조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 유기를 분해해 축적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리핀산 :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 알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업인이자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일조가모자랄때:광합성 작용을 위해 하우스 천정으로 살포 =해피한그린 1병(50말)을 일주일 간격 2회→당 상성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살포할것

키위농가 *건물중을 높이기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관주:1000평에 500g을 100말에 희석하여 한달간격 2회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육묘 키울때: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V패스(500ml) 12.5말로 2~3회 살포
*정식할때: V패스를 조루로 충분히 관주후 파종

마늘농가 *마늘종자소독: 파종 하루전 키토산(2L)25말로 희석하여 침지하거나 조루로 충분히 묻혀 관주후 다음날 파종 = 종자를 막형성시켜 세균이 침범하지 않으며 뿌리가 나오면 미생물 먹이가 되어 발아가 균일하게됨

감자농가 *더밍이병과시들은병예방을위해 토양소독: V패스(2L)+썰파고(8L)를 50말에 희석 500평 관주후 경운

제품소개

- 해피한그린 : 희토류가 들어있어 엽록소 함량 증가로 광합성 능력을 회복
- 하이 휴 믹 : 부식산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가리
- V 패 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 썰 파 고 :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고펙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